

부양 힘들다고 부모 괴롭히는 세상

■ 오늘(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최근 3년간 제주에서 463건 노인학대로 판정 발생 장소 대부분 집안... 가해자는 아들 많아

제주에서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경제적 문제에 따른 '부양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18년 158건, 2019년 146건, 2020년 159건으로 최근 3년간 463건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발생한 노인 학대 222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노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를 당했다. 최근 3년간 학대 유형을 보면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정서적 학대(45.1%)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36.4%)가 가장 많았으며, 방임(자기 방임 포함·11%), 경제적 학대(6.1%)가 뒤를

이었다.

신고를 통해 학대에서 벗어난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조용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 학대 463건 가운데 94.1%(436건)가 집안에서 일어났고, 학대 가해자 역시 아들(35.2%), 배우자(23.6%), 딸(7.8%) 순이었다.

노인 학대의 증가는 제주가 고령 인구 비율이 다른 지방보다 높은 상황인데도, 부양은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사회적 풍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 혹은 가족의 과도한 노인 부양 책임은 부양자의 우울감

이나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이는 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녀가 한 두명 밖에 없는 '메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차츰 노년 세대로 접어들고 있는 점은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대표되는 부양 부담이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부양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나쁜 놈들 등 친 30대女, 그런데...

보이스피싱 여성 수거책 현금 2000만원 갖고 도주

피싱 조직은 조잔한 복수 얼굴 사진 피해자에 전송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좌이체'에서 '대면편취'로 변하면서 조직원간 불신도 커지고 있다. 현금수거책이 편취한 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미리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아예 감시책을 세워두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A(31·여)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35분쯤 제주시 삼도동 모 마트 주변에서 피해자 B(43)씨를 만나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정책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않았고, 이를 알아챈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고객님 돈 2000만원을 A씨가 들고 도망갔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

신고 받은 경찰은 A씨와 연락을 취해 자수를 종용했고, 결국 범행 이를 뒤인 지난 4일 오후 3시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편취한 2000만원 중 1850만원을 회수, B씨에게 돌려줬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93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현금수거책과 이 수거책을 감시하는 감시책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가로등도 켜는데... '노상 술판' 골머리

탑동 거리두기 실종 여전 이호해변 쓰레기로 몸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 탑동광장 등 '노상 술판'이 지속적인 이뤄지자 제주시는 탑동광장 산책로 600m 구간에 플라스틱 드럼통 및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밤 10시 이후 가로등을 소등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렸지만 실효성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오후 10시, 제주시 탑동광장에는 가로등이 소등됐지만 여전히 방문객들은 노상 술판을 즐기고 있었다. 산책로 구간 드럼통 사이 그물망이 쳐져있지 않은 장소에 많은 이들이 모여앉아 음주·취식 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 취재(6월 2일자 5면 보도)때보다 노상 행렬은 더 길어졌다. 출입금지 조치로 인해 앞을 자리가 마땅찮아 라마다 호텔 뒤쪽 인도에 자리를 잡기도 했다. 위협하게 방파제 계단이나 난간에 걸터앉아 취식하거나 흡연하는 등의 위험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노마스크와 턱스크도 자주 보였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지켜지지 않았고, 다 먹고 난 후 쓰레기를 그냥 버려두고 가기도 했다. 건입동 주민 이모(43)씨는 "탑동

광장 가로등만 소등해봐도 아무런 실효가 없다. 일대 주변을 다 꺼버려도 남은 사람은 남는다"며 "단속 강화 및 과태료를 세게 물려 노상에서 술을 마실 엄두를 못내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탑동광장 폐쇄 등 강력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며 "주말을 포함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으며 야간의 경우 자치경찰과 협력해 단속도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호테우해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날 밤 11시, 늦은 시간임에도 이호테우해변에는 '노상 술판'이 한창이었다. 말 등대 인근부터 해안가 인근까지 인파로 가득했다.

술자리를 끝낸 후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도로변에 무단 투기하는 모습은 비일비재했다. 이호테우해변을 한바퀴 둘러본 결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장소가 3~4군데 목격됐다. 쌓인 쓰레기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주민 김모(55)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데 노상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며 "제대로 치우고 가면 좋는데 그렇지 않아 아침 운동을 나오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짜증이 난다"고 토로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탑동광장 가로등이 소등되자 불이 켜진 곳을 찾아나선 사람들(맨 위), 노상 술판(사진 가운데)과 쓰레기 봉투로 가득찬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도로. 강민성기자

판사에게 "땡큐"라고 말한 병역면탈범

20대 초반 때 미국행 40대 "한국말 모른다" 통역까지

군대에 입대할 나이에 미국으로 출국, 마흔이 돼 입국한 남성에게 징역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재판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2002년 1월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어 2005년 7월 29일 국외여행허가가 만료돼 같은 해 8월 미국귀국 시 처벌·

제재사항 및 귀국하라는 통보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한국어로 소통이 어렵다며 영어 통역관을 통해 재판을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김씨는 심 부장판사를 향해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50대 여행 중 여친 폭행

제주에 여행을 온 뒤 숙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호텔에서 여자

친구 B(40대)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아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하트메감 -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겉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하트메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종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리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사, 세미봉, 금금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산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와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